# 목 차

1.	프로	젝트 기	요 7 -	- 3
	1.1	소	JH .	
	1.2	HH	경	
	1.3	YIIY	Φ.	

## 프로젝트 개요

#### **1.1** 소 개

PickCook은 냉장고 속 재료를 등록해 재고와 유통기한을 관리하고, 그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추천해주는 플랫폼이에요. 만들고 싶은 요리를 고르면 필요한 재료도 알려주고, 부족한 재료는 바로 구매할 수 있어 요리가 더 쉬워집니다.

#### 1.2 배 경

현대인들은 요리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실제 요리 실행에는 여러 장벽이 존재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식재료 관리의 어려움: 냉장고 속 재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중복 구매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나 버리는 경우
- 레시피 선택의 막막함: 보유한 재료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모르거나, 원하는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 비효율적인 장보기: 레시피를 보고 요리하려 할 때 부족한 재료를 파악하기 어려워 여러 번 마트를 방문하는 번거로움
- 식재료 낭비: 계획 없는 구매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 발생

기획 목표

PickCook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양방향 추천 시스템을 도입한 통합 플랫폼을 제안합니다:

- 식재료 → 레시피: 보유 재료 기반 맞춤형 레시피 추천
- 레시피 → 식재료: 원하는 요리의 필요 재료 및 구매 가이드 제공
- 통합 관리: 식재료 보관 현황부터 요리 완성까지 원스톱 서비스
- 커뮤니티 연결: 요리 경험 공유를 통한 지속적인 동기부여

#### 기존 타서비스와의 차이점

- 재고 기반 레시피 추천

기존: 사용자가 식재료 키워드를 직접 검색해야 함.

PickCooK: 냉장고 속 재료를 등록해두면, 해당 재료를 소비할 수 있는 레시피를 추천

- 소비기한 관리 및 소비 촉진

기존: 유통기한 개념 없음.

PickCook : 소비기한 임박 재료는 자동 표시 -> 그 재료를 먼저 소비할 수 있는 레시피 우선 추천

- 부족한 재료 바로 구매 연동

기존: 레시피에 필요한 재료는 수동으로 구매해야 함.

PickCook : 내 재고와 레시피를 비교해 부족한 재료는 이커머스 쇼핑 링크로 연결하여 구매가능함.

- 커뮤니티

기존: 레시피 노출 + 홍보 느낌이고, 따라 만들기 중심임.

PickCook: 음식 자랑 + 팁 공유 + 레시피 응용 공유 = 실용성 + 소통

-> 내 냉장고 사정에 맞춰 요리한 경험을 공유하고, 비슷한 상황의 사용자들과 현실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 **1.1** 경제적 배경

현재 한국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과 함께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전기·가스·수도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3% 폭등하여 해당 통계 작성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은 소비자들의 식생활 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1.2 소비 패턴의 급격한 변화

모바일인덱스의 2023년 1월 집계에 따르면, 국내 3대 배달 앱(배민, 요기요, 쿠팡이츠)의 전체 사용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68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이들 앱의 총 사용시간은 4% 감소한 반면, 요리 앱 '만개의 레시피'는 10% 증가하는 상반된 현상을 보였습니다.

### 2. 홈쿠킹 트렌드의 부상

#### 2.1 '집밥족' 증가 현상

고물가와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엔데믹 상황에서도 외식이나 배달 음식 수요가 주춤하고 있으며, 다시 '집밥족'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커지는 먹거리 비용 부담에 배달비까지 부담스러워진 소비자들이 배달이나 외식 대신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 1.3 시나리오

- 1. 사용자가 입력한 재료를 기반으로 레시피를 추천받는다.
- 1. 사용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식재료를 입력한다
  - a. 냉장고에 등록해 놓은 재고를 선택한다.
  - b. 입력란에 재고를 직접 입력한다.
- 2. 선택/입력 된 재고를 바탕으로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추천 받는다.
- 3. 사용자는 마음에 드는 레시피를 선택한다.
- 4. 음식 이름, 레시피, 사용한 식재료, 식재료 구매 링크 등의 정보를 제공 받는다.
- 5. 사용자는 레시피를 이용한다.
  - a. 부족한 재료는 구매 링크를 통해 바로 구매한다.
  - b. 마음에 드는 레시피는 스크랩한다.
- 2. 사용자는 먹고 싶은 음식의 레시피를 검색한다.

- 1. 사용자는 레시피 검색란에 먹고 싶은 음식의 이름을 입력한다.
- 2. 입력된 음식 이름을 바탕으로 레시피를 추천 받는다.
- 3. 사용자는 1번과 같은 방식으로 레시피를 이용한다.
- 3. 냉장고에 등록해 놓은 식재료의 소비기한을 확인한다.
  - 1. 사용자는 냉장고에 식재료를 등록한다.
    - a. 식재료 이름, 소비기한, 수량 등을 입력한다.
  - 2. 소비기한이 임박한 식재료는 자동으로 표시해준다.
  - 3. 사용자는 소비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재료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을 추천받는다.
  - 4. 사용자는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 않게 되었다!
- 4. 사용자들은 자신의 레시피를 커뮤니티에 올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 1. 사용자1은 추천해주는 레시피보다 본인의 레시피가 더 맛있다고 느낀다.
  - 2. 커뮤니티 기능을 이용해 본인의 레시피를 올린다.
  - 3. 사용자2는 레시피를 추천받다가 사용자1의 레시피를 발견하고 이용한다.
    - a. 리뷰를 남긴다. (ex. 저는 마늘 넣어봤는데 더 맛있는 거 같아요!)
    - b. 스크랩을 해서 계속 즐긴다.